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시장은 어떻게 美 블루웨이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게 될 걸까
- ◇ (초점)-IPO 열풍 과열 지적 속 빅히트 '따상' 이후 상승분 반납
- ◇ (칼럼)-중국의 '위안화 굴기'와 한은 총재와 원화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 뒤 하남시의 한 공원에서 방문객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로이터/김홍지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16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47.4	0.5%	0.8%	-3.5%	유로	1.1718	-0.9%	4.5%	-2.3%
100엔 대비	1,083.2	0.0%	-1.9%	-4.4%	엔	105.40	0.2%	3.0%	0.9%
유로 대비	1,338.4	1.0%	-3.3%	-1.3%	위안	6.7250	1.1%	3.5%	-1.3%
위안 대비	170.49	0.2%	-2.8%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8,606.31	0.1%	0.2%	22.3%
코스피	2,341.53	-2.1%	6.5%	7.7%	나스닥	11,671.56	0.8%	30.1%	35.2%
코스닥	833.84	-4.3%	24.5%	-0.9%	S&P500	3,483.81	0.2%	7.8%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80.57	0.1%	5.0%	15.8%
국고채 3Y	0.888%	-1.9bp	-47.2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78%	-2.9bp	-30.2bp	-40.4bp	미국채 2Y	0.147%	-1.0bp	-141.4bp	-93.7bp
국고채10Y	1.493%	-5.0bp	-19.0bp	-26.5bp	미국채 10Y	0.749%	-3.0bp	-116.1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0.88	0.7%	-33.0%	34.5%	한국 5Y	24.7bp	1.2bp	3.7bp	-17.0bp
금(현물)	1,898.97	-1.6%	25.2%	18.3%	일본 5Y	15.9bp	0.7bp	-1.8bp	-4.0bp
TR상품지수	2,540.02	2.1%	2.2%	4.8%	중국 5Y	37.9bp	0.2bp	7.2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0월 19일(월)>

- 특이일정 없음

<20일(화)>

- 기재부,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발표(15:00)

<21일(수)>

- 한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관세청, 10월 1-20일 수출입동향
- KDI 현안분석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제언'(12:00)

<22일(목)>

- 기재부, 국회 종합 국정감사(10:00)
- 한은, 9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23일(금)>

- 기재부·한은, 국회 종합 국정감사(10: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0월 19일(월)>

- 일본, 수출입·무역수지 (08:50)
- 중국, 9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 (11:00)
- 중국, 3분기 GDP (11:00)
- 미국,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20일(화)>

- 호주, RBA 10월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9:30)
- 중국, 9월 주택가격 (10:30)
- 유로존, 8월 경상수지 (17:00)
- 미국, 9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1:30)

<21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22일(목)>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03:0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9월 기존주택 판매 (23:00)
- 유로존, 10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3:00)
- 미국,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 (24:00)

<23일(금)>

-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 (08:30)
- 일본, 10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유로존, 10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7:00)
- 미국, 10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2:45)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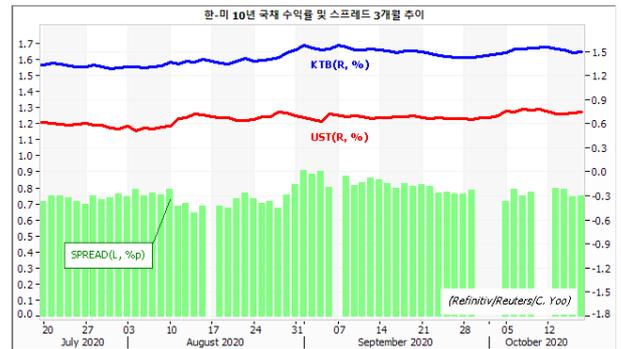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위안화 발 강세 모멘텀을 살피며 하방 압력을 저울질할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30-1158 원이다.
- 작년 4월 이후 최저치인 1140 원대로 내려앉은 환율은 일단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 유럽과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국내 확산은 일단 한풀 꺾여 코로나 19 우려에서 한발 물러났다.
-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이 주요 지표로 확인되면서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로화는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그간의 차별성이 희석되면서 악세 흐름을 타진 중이고,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달러는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고 있다.
- 원화는 글로벌 달러보다는 위안화와 보폭을 강하게 맞추며 절상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
- 19일 발표되는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9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은 위안화의 추가 움직임에 주요 힌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고, 원화는 그 흐름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인민은행의 대응이 변수지만, 차별성을 띤 위안화 강세 모멘텀까지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2일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예정된 만큼 관련 불확실성에 국내외 금융시장은 변동성 장세에 대비는 필요하다.
- 국내 지표로는 21일 이달 20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가 예정돼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19 재확산과 미국의 재정 부양책 관련 협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며 제한적인 변동성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대내외 주식시장은 여전히 미국의 재정 부양책 협의 여부를 놓고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한 1조 8000억 달러 부양안안을 "증액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긍정적이지만 공화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 재정 부양책 협의는 지지부진한데 코로나 19 재확산 흐름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미국의 신규 코로나 19 확진자가 6만 9천명을 넘어 서면서 7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에서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영국, 미국 등이 재봉쇄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해서도 낭보와 비보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제약사가 코로나 19 백신 개발을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화이자는 "오는 11월 셋째 주에 현재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도 새롭게 부각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헛발질을 하는 사이 승기를 굳혀가는 듯했던 바이든 후보에게 '10월의 충격'이 닥쳤다.
-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는 흐름이다. 여기에 국내 시장의 수급 부담이 다소 경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은 제한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칼럼)-시장은 어떻게 美 블루웨이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걸까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로이터) - 다음 달 미국 대선과 관련해 한가지 일치하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투표 전후로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투표를 3주 앞둔 시점에서 뒤집히고 있다.

표차가 크지 않고 논쟁거리가 있는 대선 결과는 투자자들이 수개월 동안 우려하던 주요 사항 중 하나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10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 따르면 여전히 응답자 60%가 대선 결과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4분의 3은 선거 결과로 인해 시장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5월 이후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벌려가는 가운데, 베팅업체들은 깔끔한 대선 결과와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 및 민주당의 압승을 높게 점치고 있다.

투자 은행과 자산 매니저들은 역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지출이 많아지고 부유세 및 법인세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이제는 이들의 깔끔한 압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선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월가 주식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와 11월 및 12월 VIX 선물 거래 등 S&P500 지수의 잠재적 변동성은 6주래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9월 수준의 약 2배인, 두 자릿수로 앞서고 있다. 유럽의 베팅업체들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주요 경합주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베팅 사이트 프레딕트잇(PredictIt)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최대 66%, 민주당의 압승을 59%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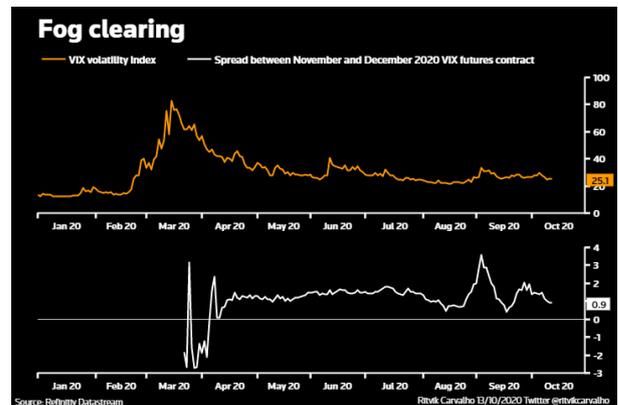
투자자들 역시 걱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투자 흐름 전략가들은 9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압승하는) 블루웨이브 선거 결과는 최근 몇 달간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요소에서 긍정적인 촉매제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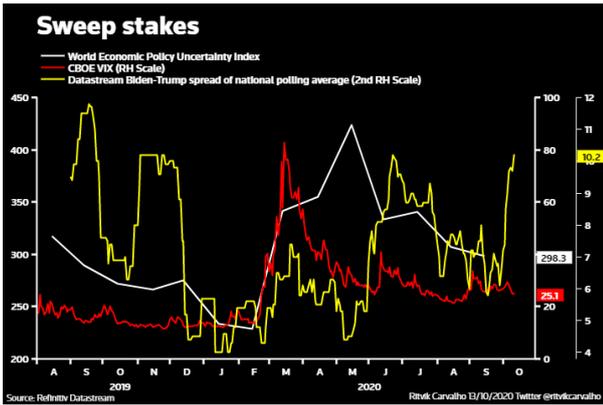
앤드류 시츠 모간스탠리 교차자산 전략가는 "압승 가능성이 높을수록, 결과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존 노만드 JP 모간 전략가는 추가로 "블루웨이브로 인해 큰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재정 절벽과 백악관의 터무니없는 행동들, 그리고 치열한 선거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 민주당의 압승은 5월쯤 시작되어 8월 이후 추진력을 잃은 뒤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미국 및 글로벌 경제 확장에 재시동을 건다"며 "규제 정책 방향, 법인세 인상에 따른 영향, 비밀스런 반세계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향후 12개월 동안 더 중요한 것은 전방위적인 부양책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내기

그러므로 잠재된 변동성은 판데믹과 대선이라는 두 가지 불확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풀려 온 것일 수도 있다.

VIX 지수가 헤징 도구로 사용되기에 과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9월 말 VIX가 30 부근 수준이라는 것은 향후 한달 동안 일일 1~2%의 시장 변동성을 시사했다. 다시 말해, 이미 많은 우려 요인들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한 주 동안 8월 이후 최저치인 24까지 떨어졌던 것은 이런 점이 더 반영된 듯하다.

11월 및 12월 VIX 선물 계약은 28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8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이기도 하다.

통화시장 변동성 지수 역시 7월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했다. 채권 시장 거래만이 대규모 재정 지출 이후 가팔라질 수익률 곡선 효과를 반영하며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일부 논평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런 의사결정 스타일과 '트위터를 통한 정책'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앞으로 변동성이 낮아질 또 다른 이유로 꼽는다.

언론의 정책 우려 언급을 주요 기반으로 삼는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시 판데믹 확산에 따라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한 뒤 하락했고, 9월 지수는 다시 2019년 8월 수준을 밑돌았다.

그러나 올해 판데믹 충격의 여파와 대규모 지원을 선거 그 자체와 분리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더 예측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이전 그의 재임기간 동안의 증시 변동성이 직전 4년보다 더 컸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판데믹 직전 통화 변동성은 2016년의 절반 수준이었고 채권시장 거래도 많지 않았다.

최근 VIX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잠재 변동성으로, 현재 16년 만에 가장 큰 변동성 전조가 일부 보이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 정부 하의 규제 우려인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베팅으로 옵션을 사용하는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일부는 선거와 판데믹이 뒤에서 다가올 때 눈앞의 큰 변화를 보고 있다.

시츠 전략가는 "바이든의 승리는 거대 기술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규제상의 이유 때문은 아니다"며 재정 부양책과 백신은 수익률 곡선을 가파르게 만들고 거대 기술주가 큰 혜택을 보는 "비정상적인 경제 환경"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점)-IPO 열풍 과열 지적 속 빅히트 '따상' 이후 상승분 반납

서울 (로이터) 이지훈 기자 - 올해 서울 주식시장에 초대형 상장이 잇따르면서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기업의 영업 내용 및 성장 잠재력, 적정 주가 수준 등 펀더멘털보다는 투기적인 단기 차익을 노린 과열 현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투자 열풍은 세계적인 가수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352820.KS의 최근 공모주 청약에도 나타났으며, 수심조원의 일반 투자자 자금이 청약 접수를 위해 움직이고 일반인들이 청약을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는 일도 흔해졌다.

상장할 때 몇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빅히트 주가는 최근의 몇몇 경우와는 달리 15일 상장 첫 날 공모가 대비 160% 수준까지 상승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한 뒤에는 상승폭을 대거 줄이고 있다.

이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부양책 협상이 지연되고 유럽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이 가속화하고 있어 주가를 포함한 위험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지만, 빅히트의 적정 주가에 대한 논란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 '묻지 마' IPO 열풍

올해 서울 주식시장에는 SK 바이오팜 326030.KS, 카카오게임즈 293490.KQ 에 이어 빅히트까지 '대어'급 기업공개가 연달아 이뤄지면서 공모주 투자 열풍이 이어졌다.

코로나 19 충격 이후 전 세계 통화 당국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고, 재정 당국도 자산 가격 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 여파로 자산 가격은 급등했고,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관심도 커졌다.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 증거금 납입액은 카카오 게임즈(58 조 6 천억원), 빅히트엔터테인먼트(58 조 4 천억원), SK 바이오팜(31 조원) 등으로 역대 1-3 위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 3 위인 네이버의 시가 총액이 48 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상장 직후 SK 바이오팜은 바이오 종목 기대 속 공모가 대비 최대 343% 상승했고,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 영업 전망과 관련한 수혜 기대에 공모가 대비 최대 238% 상승했다.

▲ 상승세 오래 못 가

하지만, 최근 들어 상장 이전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기간 종료와 함께 이들 기업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모주 열풍은 과열이라는 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가는 지난 12 일 기관 투자자의 1 개월 의무보유 배정 수량 436 만주가 풀리면서 7.4% 급락했다. 이날 증가는 상장 직후 최고가 대비 44.9% 하락한 수준이었다.

SK 바이오팜 주가도 지난 5 일 기관 투자자의 3 개월 의무보유 수량 171 만주(12.9%)가 풀리면서 10.2% 급락했다.

카카오게임즈와 SK 바이오팜의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수량은 각각 364 만주(3 개월 258 만주, 6 개월 106 만주), 436 만주(6 개월)가 남아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오로지 차익 실현보다는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모집한 자금을 통해 연속적인 기업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기업 활동을 보여주는지 지속적인 투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빅히트 '고평가' 견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BTS 에 의존적인 수익 구조, BTS 멤버의 군 입대 관련 불확실성 등에 상장 이전부터 고평가 지적이 나왔다.

빅히트는 기업 평가 당시 유사 기업으로 14 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 위인 네이버와 9 위인 카카오가 포함되었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4 조원대로 국내 3 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 JYP, YG 시가총액을 합한 3 조원보다도 크다.

국내 리서치 회사 밸류챔피언은 이메일로 배포한 자료에서 "세계 3 대 레이블로 손꼽히는 Warner Music Group(WMG)의 매출은 빅히트 매출의 약 9 배를 기록하였으나,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3.5 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과연 빅히트가 BTS 에만 의존하며 WMG 시가총액의 30%에 버금가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빅히트가 높은 기업가치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BTS 의 군 입대 불확실성 해소 뿐 아니라, 높은 평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자사 플랫폼 '위버스'의 가치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황현준 DB 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단일 팀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부분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높게 평가된 것은 맞다"면서 "다른 플랫폼 사업자보다 높게 평가된 '위버스'가 가치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황현준 수석연구원은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혼자 높은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초반 과열 양상을 보이더라도 향후 본질 가치를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빅히트는 자사 플랫폼 가치를 시장에서 어떻게 부각시키냐에 따라 얘기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칼럼)-중국의 '위안화 굴기'와 한은 총재와 원화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3 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글로벌 달러의 방향은 어떻게 변할까?

시장 참가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달러 강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달러 약세로 보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 모두 대규모 재정 부양에 적극적일 테니 달러 약세 추세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 미-중 관계인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과 중국의 대치 전선이 더 극명해지며 달러 강세를 추동하겠지만, 다자주의 외교를 신봉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일정 부분 개선되리라는 기대감이 이같은 전망의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새로운 패권 국가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무차별 무역전쟁을 펼치며 전선을 확장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의 일사불란한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선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노골적인 견제에 대항할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힘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달러 결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글로벌 상품과 서비스의 결제통화로 사용됨에 따라 미국은 언제나 입맛에 맞지 않는 나라와 기업을 '불량국가'로 지정해 심판할 수 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마치 중세시대 로마 교황청의 '파운권'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당장 미국의 달러에 비하면 위안화의 입지는 미미할 정도다. 2020년 1분기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는 데 반해 위안화는 2%에 채 미치지 않는다.

다가올 미국과의 한판 대결을 감안할 때 중국이 현 상황에 안주해선 답이 보이지 않는 이유다.

▲WGBI 편입·금융시장 개방·디지털 위안 추진의 배경

최근 일련의 뉴스들은 중국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분명한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24일 중국 국채가 FTSE 러셀의 세계국채지수(WGBI)에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중국 정부는 지수 운영사인 FTSE 러셀과의 협상 과정에서 시장 마감 시간을 저녁 늦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간과 쓸개까지 빼줄 기세였다고 한다.

중국 국채의 WGBI 편입이 위안화에 미칠 영향은 분명했다. 지난 2010년 원화 채권의 WGBI 편입을 추진하던 기획재정부가 결국 협상테이블에서 빠져나온 것도 달러/원 환율에 미칠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중국 국채의 WGBI 편입을 추진한 건 투자자들에게 인정받는 채권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달러 패권의 기반도 결국 미국 국채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 채권시장은 16조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지만 많은 투자자에게 '복불복 시장'으로 인식된다. WGBI 지수 편입을 통해 중국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게 중국 정부의 큰 그림일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본시장 규제의 턱을 낮추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계 은행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의 문을 오히려 활짝 열었다. 오는 11월부터는 외국인의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물과 옵션 등 파생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는 글로벌 무대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와 맥이 닿아 있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위안화 자체만으로는 달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팽배하다.

중국 정부가 어느 나라보다 의욕적으로 위안화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이유기도 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위안화는 달러 패권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눈 밖에 난 국가들에는 매력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지면 디지털 위안화 역시 더 빠르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달러의 디지털화에 소극적인 미국과의 격차를 벌릴 기회이기도 하다.

▲위안화의 도약과 한은 총재 발언, 원화 방향성 가늠자 될까

코로나 19 확산 이후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중국의 통제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면서 위안화는 한 발 빠른 도약을 이뤄내고 있다.

물론 달러/위안 환율의 하락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판단에 지난 주말 중국인민은행이 은행권의 외환 선물환 거래에 부과하던 20% 준비금 적립 의무를 폐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가올 미-중 패권 전쟁과 중국의 전략적 선택은 중·장기적인 위안화 강세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이 총재는 "7월 이후 미 달러화 지수가 급락하고, 위안화가 크게 절상되는 가운데서도 달러/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해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내 코로나 19 상황 진정으로 9월 중순 이후부터 원화 강세가 빨라진 것은 그간의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재는 환율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처럼 크지 않다고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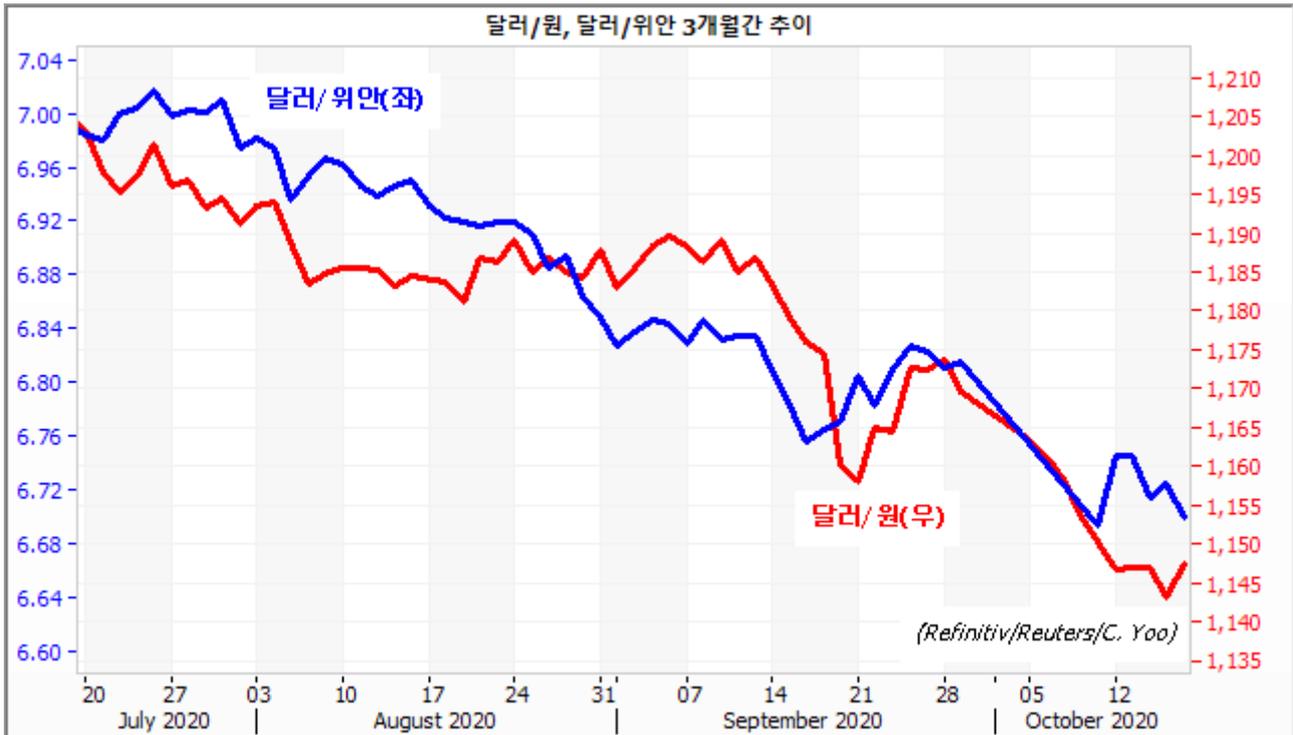
이 총재의 발언에는 결국 위안화와 연계해 움직이는 원화의 강세는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보고 있다. 달러/원 환율 1150원이 깨지며 기술적으로는 1100원대 초반까지 열린 상황인 만큼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현 정권이 그동안 보여왔던 환율정책 스탠스와 중국의 위안화 굴기 흐름이 크로스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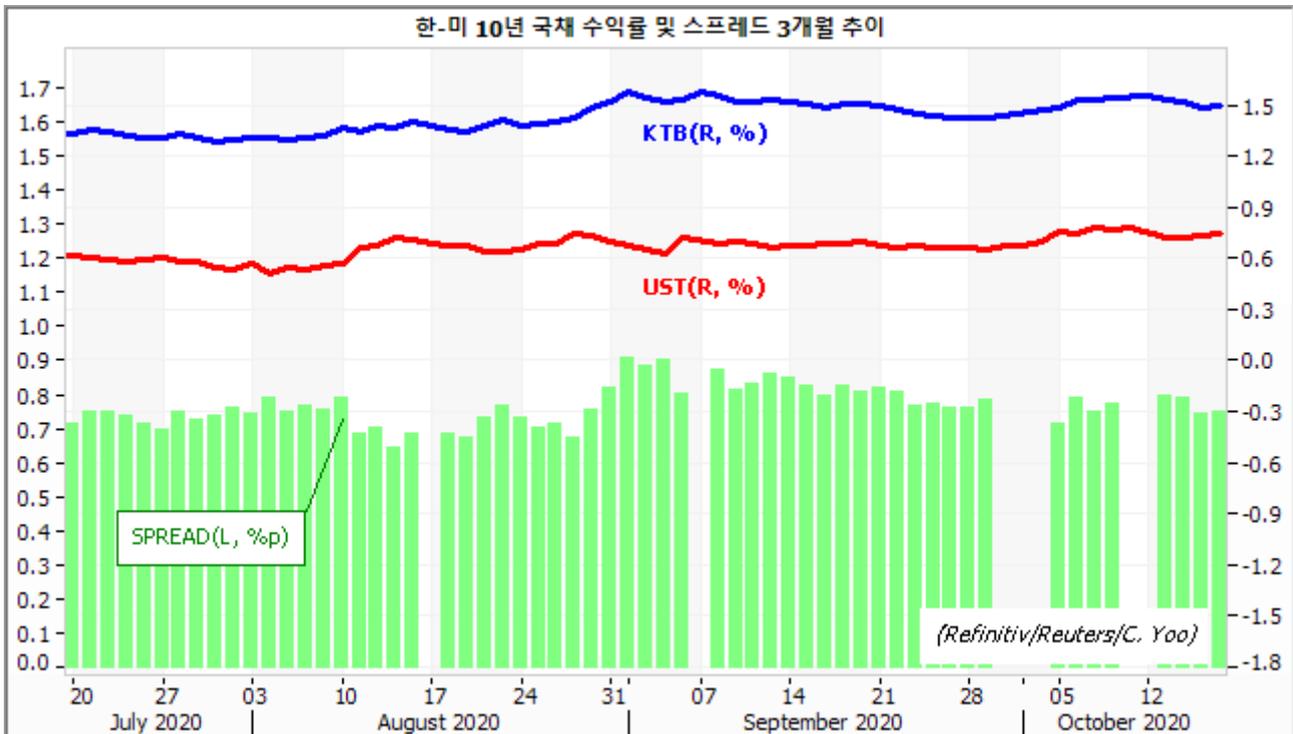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Fog clearing

VIX volatility Index

Spread between November and December 2020 VIX futures con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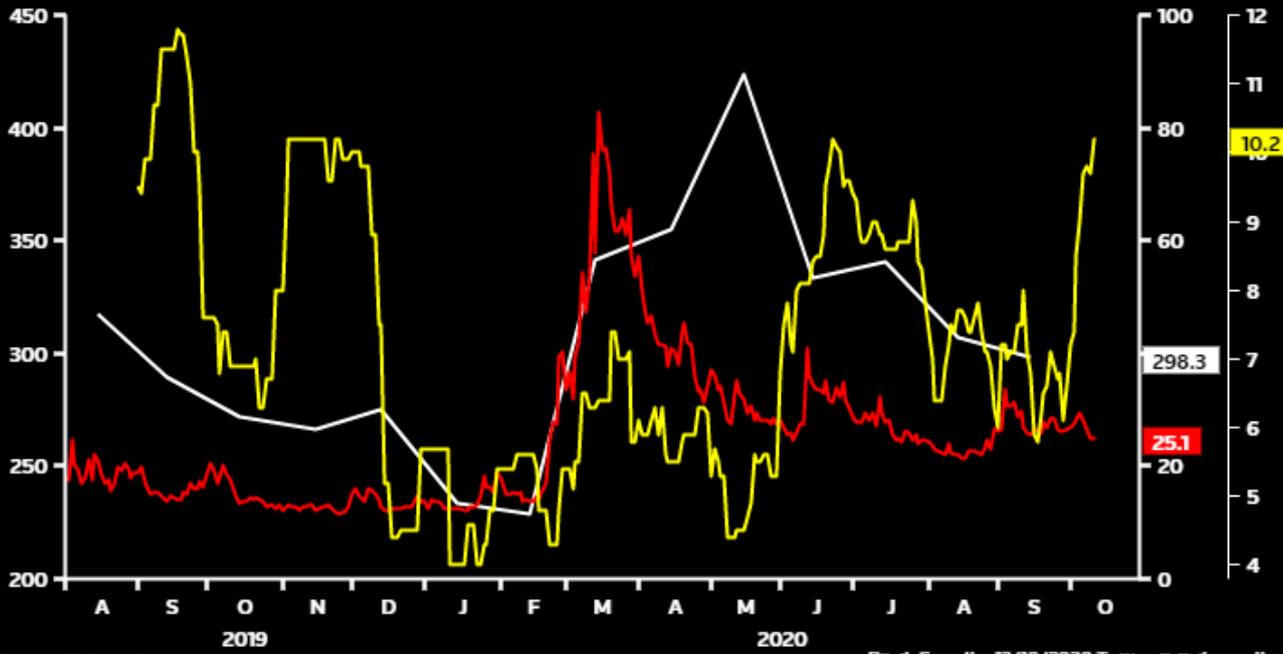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Ritvik Carvalho 13/10/2020 Twitter @rtvikcarvalho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Sweep stakes

- World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 CBOE VIX (RH Scale)
- Datastream Biden-Trump spread of national polling average (2nd RH Scal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